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732 / 393-1210
Fax 732 / 393-1140
www.DrDouglasLee.com

Su-Ra Catering (구)수랏상

새로 이전한 수라 케이터링에서
더 깊이진 풍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즐거움 약국, 편안한 약국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카톡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KWIK MORTGAGE
퀵 모기지
주택융자, 상용건물, SBA융자

타은행에서 융자 거부된 분 상담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spark@kwikmor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크리닉

732-248-1980 1939 RT.27 Edison NJ 08817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ustrust@gmail.com

김자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United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들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B&B Auto Repair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Tel (732)985-9500
Fax(732)985-7637

Complete Auto Repair & Body Work
Lic. #2208A
NJ State Inspection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프린스/턴/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 08542

Century 21
SYLVIA GEIST AGENCY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Central Funeral Home
중앙장의사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E AUTO 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HYUNDAI
TOYOTA KIA NISSAN MAZDA Jeep CHRYSLER

모든 차종,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온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2021년
11월 21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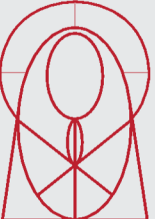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목 10a-3p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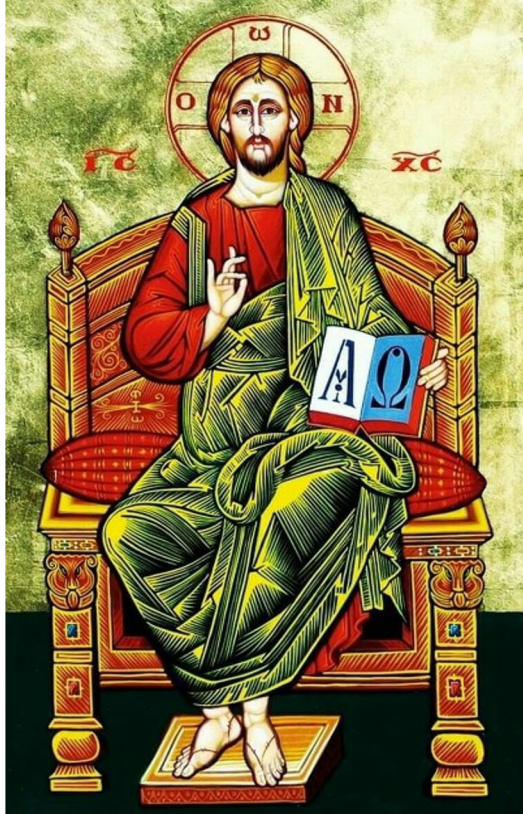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그리스도 왕>
이흥구 스테파노 작

<이번 주 전례 안내>

- #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7,13-14
- # 화답송 시편93(92), 7ㄱ-1ㄷ-2.5 (◎1ㄱ)
-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 #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5ㄱ-8
- # 복음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복음 요한 18,33-37
- <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11/22/21	다니엘 예언서 1,1-6.8-20	루카 21,1-4
화요일 11/23/21	다니엘 예언서 2,31-45	루카 21,5-11
수요일 11/24/21	다니엘 예언서 5,1-28	루카 21,12-19
목요일 11/25/21	다니엘 예언서 6,12-28	루카 21,20-28
금요일 11/26/21	다니엘 예언서 7,2-14	루카 21,29-33
토요일 11/27/21	다니엘 예언서 7,15-27	루카 21,34-36
일요일 11/28/21	예레미야서 33,14-16 사도 바오로 테살로니카 1서 3,12-4,2	루카 21,25-36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이희숙(데레사)
- 최상우 - 최정원(레지나)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이화자(마틸다) - 가족
- 민병애(마리아 막달레나) - 민병준(요한)
- 윤영노(글라라) - 최정원(레지나)
- 한석희(빈첸시오) - 가족, 김순옥(올리아)
- 최탁환 - 손종철(안드레아) 가족
- 김성호(루수), 김 엘리자벳, 김 요셉 - 가족
- 김준호(베드로) - 가족
- 유귀득(마리아) - 가족
- 조상님들 - 허 아나스타시아
- 정혜자, 정건석 - 가족
- 이상배, 지순금 - 가족
- 김병상(필립보) 문시놀 - 이석종(스테파노)
- 한경애(유리안나) - 가족
- 세상을 떠난 모든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 천상의 지혜Pr.

생미사 - 봉헌자

-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과 아버님 토마스, 가족분들 - 이스트브런스윅구역, 노스브런스윅 구역, 피스브릿지 구역, 카도너CLC
- 김철희(시몬) 신부님 - 교우
- 오경선(원선시오) - 이희숙(데레사)
- 곽 율리안나 - 손종철(안드레아) 가족
- 김주희(세실리아) 수녀님 - 이 헬레나
- 김옥전 - 김태경(카타리나)
- 이원석(바오로), 미나(베로니카) 새 가정 - 가족, 노스에디슨 구역
- 신준호(빈첸시오) - 박정훈(베드로)
- 허정(아나스타시아) - 최정원(레지나)
- 채우진(사무엘) 가정 - 최정원(레지나)
- 우성현(스테파노) 가정 - 하연승(요한)

공지사항

코로나 관련 마스크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미사 참례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제대 왼편(성가대 맞은 편)에 앉으시면 됩니다.

- # 2차헌금
 - 11월 21일: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vlpmnt (교구청 주관 미국 내 빈곤퇴치 운동)
 - 12월 5일: Christmas Flowers

손님 신부님 미사 집전 안내
- 본당 주임신부님의 한국 방문으로 인하여 손님 신부님께서 방문하시어 미사를 집전 해주십니다.
- 11/21 김철희(시몬) 신부님
- 11/28 김홍철(베다) 신부님

주일학교 자모회 축성 대림초화환 판매
- 일시 및 장소: 11월 21일(주일) 미사 후 성당 우측 입구
- 가격: 20불

피스브릿지 새 구역원 환영회
- 일시 및 장소: 11월 21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일시 및 장소: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2시, 친교실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서는 미사 후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림판공 성사
- 일시 및 장소: 12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성당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교무금 납부 안내

유병기(10-12)	이종권(10-12)	변태용(7-12)
손종철(10-12)	박재영(11-12)	서정근(11-12)
오경선(11-12)	이재서(11-12)	서영원(11-12)
김삼식(11)	추승호(10-12)	장수지(8-9)
최영옥(11)		합계: \$3,870

감 사 헌 금

백상헌(\$500)

주일 헌금 납부 안내

주일미사 참여 162 명	합계 : \$1,699
2차 헌금(유틸리티)	합계: \$692.69

< 요한 복음 > 18,33ㄴ-37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2021년 11월 14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마르 14,7)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마르 14,7). 파스카가 있기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값비싼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마르 14,6).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가난한 이를 대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 형성된 이 강한 ‘공감’과, 유대와 다른 이들이 느낀 불쾌함과 반대되는 그 여자의 도유에 대한 예수님만의 해석은 예수님과 가난한 이들과 복음 선포 사이의 떼어놓을 수 없는 연결 고리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하느님의 얼굴은 가난한 이들을 걱정하고 그들 곁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진정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들은 복음화되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며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도록 부름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마태 5,3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의 운명을 함께 나누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사입니다.

종종 가난한 이들은 특별한 자선 봉사가 필요한 ‘부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상호 나눔과 참여라는 도전 과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상의 보물을 모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재물, 세속적 권력, 허영심을 버리고 가난한 이가 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을 사랑으로 내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은 종종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 처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역량의 보완과 역할의 다양성이 상호 참여를 위한 공동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재능을 귀하게 여기는 발전 과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유한 이들’이 지닌 많은 형태의 가난은 ‘가난한 이들’이 지닌 부유함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베푸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가난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통계만 내고 몇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으로 감동을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자유의 신장을 향한 창의적 계획을 세우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마르 14,7). 이 말씀은 선행의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말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비로운 이들은 궁핍한 이들에게 항구와 같습니다. ... 항구는 그들이 약인이든 선인이든, 그들이 그 누구든 상관없이 쉬게 해 주는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가난이라는 난파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거든 그를 판단하지도, 그의 행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도 말고 불행에서 그를 구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손쉽게 얻은 결실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엇이라도 할 태세를 갖추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공포와 불안, 경우에 따라 폭력까지 불러오는 온갖 방식으로 분노하고 느닷없이 신경질 부리며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태도들 자체도 가난의 여러 형태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음적이겠습니까. 우리도 가난하다고 말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며 그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1년 6월 13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프란치스코